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제4호 · 1998년 10월 10일 발행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156-74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5동 1-1

□ 인사말 □

관계의 복원을 위하여



동문회장 박근용

(35회 · 전 서울장신 회장)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을 요즈음처럼 실감하기도 드문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 돌아가는 일상에서 나를 돌아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가, 한 달이, 한 해가 어느새 훌쩍 지나가 버리곤 합니다. 진작 인사를 드렸어야 마땅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늦었지만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해 11월 24일 우리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총회에서 영광스럽게도 회장으로 다시 선출되었습니다. 그만 물러나야겠다고 생각했었으나 뜻하지 않게 중책을 맡겨 주셨습니다. 생각 끝에 미력이나마 철학과의 발전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저에게 부과된 2년 임기 동안 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우리 철학과 동문회의 활성화와 자립의 기틀을 만드는 일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우선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직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철학과 동문회도 짚아보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웬만하면 누구나 다 해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문제는 동문들을 조직하고 관심을 끌어내고 기금을 모으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은 그리 크게 빛나지는 않지만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일입니다. 저는 우선 철학과 동문회의 조직을 재건하여 각 기수, 직능단체, 지역별로 지부를 활성화하는 한편, 동문회 발전 기금을 모금하는 일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교육 내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숭실철학강좌」(가칭)를 개설하여 동문

들의 토론과 재충전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문들 가운데에는 철학의 영역에 서뿐만 아니라 신학, 문학 등의 분야에서도 일가를 이룬 분들이 많습니다. 또 교육, 선교, 사업 등의 영역에서도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동문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동문들이 모여 그 동안의 경험담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삶의 자양분이 될 것이며 후배들에게는 새로운 세계에 개안(開眼)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동문회의 「소식지」를 가능한 한 자주 발간하려고 합니다. 「소식지」는 동문 여러분에게 개방되어 있는 상호 교류의 광장입니다. 얼마나 자주 발행하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동문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졸업생과 철학과의 관계, 동문 상호간의 관계 등 우리 모두의 관계가 동문회를 통해서, 그리고 「소식지」를 통해서 복원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영광스러운 일은 제가 학교법인 송실재단의, 임기 4년의 이사에 피선된 일입니다. 송실대학교 총동문회에서 추천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철학과와 송실대학교를 위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04년이 되면 송실대학교에 우리 철학과가 동지를 틈 지 반백년이 됩니다. 지천명(知天命)의 잔치를 성대히 치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갑시다.

원 고 모 집

송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에서 발간되는 소식지는 동문 여러분의 이야기와 글로 꾸며집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내용 : 은사에 대한 회고, 재학 시절의 일화, 모교 발전을 위한 제언, 동문들의 동정 등

- 제출 : ☎156-74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5동 1-1

송실대학교 철학과 사무실

Tel.: (02) 820-0370

e-mail address: philos@saint.soongsil.ac.kr

□ 學窓落穂 □

내가 철학의 문을 두드린 까닭은 ...

배선복
(53회 · 송실대 강사)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앎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 근대의 라이프니츠는 자아에 대한 통각의 여정이 하나님의 오성으로부터 온다고 말했다. 전자는 고대 철학을 완성한 학자이며, 후자는 근대 철학의 정신을 새롭게 밝혀준 학자이다. 전자의 철학에는 하나님이 앎의 체계의 관상에서 하시는 일이 별로 없이 지내지만, 후자의 철학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전 역사와 세계사의 과정에 대한 예비적 결정을 주시는 어디에서나, 모든 능력으로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는 나의 앎의 체계를 위하여서는 나도 대단하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전 우주를 관통하면서까지 행위할 수 있는 정신의 자유조차 가지게 하는 뿌듯한 힘이 된다.

내가 철학의 문을 두드린 까닭은 고교시절 그 당시 전국자유교양 경시대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나는 거기서 『논어』, 『향연』, 『한중록』 등의 저작을 읽고 문답식 시험을 치르고 독후감도 적어 내어서 강원도에서 동메달을 그리고 처음으로 시골에서 서울 구경을 한 전국대회에서 문교부장관 장려상을 받고 난 다음에 온 나의 자각에서 시작된다. 그 다음에 어쩌다 들은 송실대 철학과 '안병욱'이라는 이름 석 자의 나의 들음은 더욱더 철학에 대한 나의 앎이 깊어지는 듯 하였다. 그러나 송실대 입학과 동시에 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보니, 한 인격에 대한 믿음이 철학 지식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시문학"이라는 잡지에 대학생 수필모집이 있어서 거기에 "知와 사랑에 대한 斷想"을 투고하였더니 나의 글이 그 잡지에 실리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철학에서 오는 지식으로는 어떤 특별한 수입이 생기지는 않은 것이었다.

이윽고 '내일 해가 떠오르는지 혹은 아닌지'라는 경험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은 그저 노숙한 영국의 경험론자들의 이론이고, '나'란 단지 하나의 개념적 보편자이고, 종(種) 개념의 지적인 존재일 뿐임을 전달해준 칸트의 선험적 통각에서 내가 찾아 나선 오랜 독일유학생할 끝에 철학은 들음으로부터 온다는 속설을 입증하는 하나의 결론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나의 친구인 이탈리아의 라이프니츠 연구가인 스테파노 디벨라(Stefano Di Bella) 박사로부터 들은 '사람이 천체를 움직이는가'라는 단테(1265-1321)의 『신곡』의 대미를 장식하는 명제가 그것이다. 갈릴레이나 케플러 이후 자신이 서있는 자리의 중력이외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던 뉴턴은 단지 빛의 움직임만을 바빠 쫓아갔고, 이제 유럽의 지성은 더 이상의 천체와 별들의 오묘한 움직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1) 단테 사후 근 500년이 훨씬 지난 후 프레게

1) 이 말도 반드시 99퍼센트밖에 맞지 않은 것은 필자가 관측한 1985년 유럽의 어느 여름날 우리의 스승 조요한 교수께서 단테의 무덤이 있는 과거 동고트족의 수도인 북부이탈리아 라벤나로 여행길에 오르셨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중세의 아베로이스트들이 천체를 움직이는 분할적 지성에 대하여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지성은 나름대로 합리적 영혼의 불멸의 대상들에 대하여 보편의 진리

(1848-1925)는 그러나 '새벽별'과 '저녁별'의 존재론의 새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고 그의 20세기 플라톤주의는 다시 수많은 언어 철학자들의 사랑의 세레나데의 심장을 두드리는 존재론의 서곡을 예고하는 조짐이었다.

여기에 이르자 나는 다시 철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최초로 들었던 '안병욱'이라는 이름과 과거 학생시절 그와의 인연을 상기하였다. 나는 졸업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당시 학과장이셨던 그에게는 상징적으로 마른 플라타너스 한 잎을 선물하였고, — 마치 아퀴나스가 그렇게 세계를 설명한 듯이 — 다른 하나의 잎사귀는 강형철군에게 증여하였는데, 강형철군은 나의 양복 왼쪽 윗주머니에 푸른 플라타너스 잎사귀 한 조각을 꽂아준 채로 사진 촬영시에 임하였다.

'믿음이란 항상 어느 누구에게서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 (Ad fidem pertinet aliquid et alicui credere)'이라는 옛 지혜의 말씀이다. 나는 정말 여전히 프레게와 같은 플라톤주의자인가?²⁾

* * *

81년 여름 어느 날

신하령

(55회 · 승실대 감사)

지하철을 타고 오며가며 대학 4년 동안에 대해 기억해 내려고 애쓰는 시간이 많아졌다. 필요에 의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청한 것이기도 하다.

대학 다닐 때는 늘 쓰고, 짜고, 뜨겁고 매운 맛만 보았다. 게다가 '노여움'까지 상당히 곁들여서... 그러나 남에게 들려주어서 함께 즐거워 할 만한 체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래도 굳이 하나를 끄집어내자면, 친구 하나에 관한 것이다. 넷이서 그 친구의 금테 안경을 빌린 대낮에 전당포에 맡기고, 신촌에서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셨다. 그날의 주제는 어찌다보니 또 다른 한 친구의 가족사에 관한 것으로 흘러갔는데, 따지고 보면 누구네 집이라도 대대로 유전처럼 내려 올 법한 평범한 이야기였다. 결국 그가 제 설움에 치어서 초주검이 되어 어둠 속에서 버스에 실려 가는 것을 명칭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그날은 마무리되었다.

이것이 즐거운 추억거리일까? 아무리 큰 고통에 대한 것이라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적어도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데가 있어야 추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지난 일이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어 그 나름대로 아름답게 보이는 莊子的인 세계는 그때도 지금도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아직도 그날은 목에 가시 처럼 박혀 있어서 쉽게 웃어 버릴 수가 없다.

의 바다에서 꾸준히 만나고 있었다.

- 2) 저의 글을 읽고 소식 주실 동문님께서서는 저의 e-mail : mungae@unitel.c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내가 길이 엇갈려서 각기 제 길을 찾아갈 무렵에 우리는 니체를 자주 화제에 올렸다. '철학이란 얼음과 준령 속에서도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는 말에 깊이 끌려서 서로 그것을 잊어 버리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나는 아직도 자유롭게 살지 않게 살고 있다. 어디로든 가지 못하고 움지 입을 잃고 고정된 채로... 마치 육아주머니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버둥거리는 지적인 발육부진아 같은 꼴이다. 고야의 그림 '모래에 빠지는 개'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초상이라고 중얼거린다. 얼음과 준령 속에서도 자유롭게기를 바랬던 것이 세상 물질 모르는 바보의 꿈은 아니었는지 마음속으로 혼자서 물어보고만 있다.

헤아려 보니 십육 년이 지난 일인데, 시간은 사람의 질긴 껍질을 잠식하고, 가슴속에 담겨 있는 무형의 꿈을 쪼먹고, 동시에 인간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무너뜨리며, 친구에 대한 우정마저 녹슬게 하고, 또한 사람을 냉소적인 몸쓸 인격으로 끌고 간다. 시간에 의한 이 변모는 결국 자신의 테크놀로지, 자기 수양이 결여된 탓일 것이다.

'빛나는' 화창 시절에 대한 이 버거운 기억에 시달리면서, 가을을 맞을 무렵,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목격했다. 최근에 『허무함과 자연스러움』을 출판하신 최명관 선생님께서, 몇몇이서 축하의 뜻을 담아 드린 '새빨간 장미꽃 한 다발을 꼭 껴 안고' 명동에서 지하철에 오르시는 모습이였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 마땅히 무차별적으로 발동해야 할 그 일체감이 왜 늘 아는 대상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

지하철에 얹혀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여름 한낮에 벌인 겁 없고 무모한 행각을, 공범이 된 탓에 더욱 굳어진 유대감을, 전당포를 나와 각자의 몸무게를 싣고 재빠르게 흩어지던 발소리를, 그 발소리를 집어삼킨 구정물에 찌든 뒷골목을, 가족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과 사람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혹시 꿈에라도 친구에 대한 기억이 무의식 속에서 선명하게 떠오르기를 기대하며 졸음을 청한다.

알 렴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 여러분의 연회비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다. 동문 여러분의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연 회 비: 회장단(12만원), 임원(10만원), 일반회원(5만원)

은행구좌: <예금주 : 송철동문(김기순)>

한일은행 461-146308-02-001

외환은행 259-13-00134-9

우체국 012948-0048513

동문회

I. 동문회 행사

▶ 철학과 동문회 정기총회

1997년 11월 24일 모교 과학관 5층 대회의실에서 철학과 동문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총회는 사업 및 재정 보고, 회칙 개정, 임원 선출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회장에는 박근용 동문(35회·전 서울장신 학장), 총무에는 한석환 동문(49회·모교 철학과 교수), 그리고 감사에는 박덕신 동문(39회·수유감리교회 담임목사)과 김의원 동문(43회·총신대 신학과 교수)이 선출되었다. 그 밖에 기별 모임의 활성화, 「소식지」 속간, 동문회 기금 확보, 「승실철학강좌」(가칭) 개설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총회를 뜻있는 자리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안병욱 교수님을 모시고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생활의 지혜”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을 듣기도 했다.

▶ 회장단과 이사회 구성

총회의 위임에 따라 동문회장은 다음과 같이 회장단과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회 장: 박근용(35회)

부회장: 최기만(33회), 김기순(34회), 차시웅(35회), 장재덕(38회), 박종순(40회), 홍진일(53회), 김복영(대학원)

총 무: 한석환(49회)

감 사: 박덕신(39회), 김의원(43회)

이 사: 장덕수(30회), 현순호(31회), 한정탁(32회), 오세상(33회), 장원덕(33회), 신인현(34회), 정영환(34회), 권영진(35회), 이종윤(35회), 이만신(35회), 이승하(35회), 김상학(36회), 이상운(36회), 김태규(37회), 홍순관(37회), 임순삼(38회), 이명수(40회), 최종을(40회), 나겸일(41회), 노용한(42회), 조성기(43회), 목창균(44회),

황종근(45회), 육경수(46회), 김재욱(47회), 나 성(47회), 위정식(48회), 관신환(49회), 진우섭(49회), 안홍순(50회), 장영호(51회), 홍인종(51회), 양국진(52회), 강형철(53회), 이윤일(54회), 임형섭(55회), 정세근(56회), 이순웅(57회), 김재진(58회), 김재호(59회), 김후식(60회), 김양호(61회), 김낙현(62회), 이 훈(63회), 명현수(64회), 김재범(65회), 김기상(대학원)

▶ 이사회 및 신년하례식 개최

동문회에서는 1998년 1월 12일 오후 4시 모교 사회봉사관 튜올립 홀에서 새해 첫 이사회를 열고 상견례를 가졌으며, 6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승실철학연구회와 함께 신년하례식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신년하례식에는 약 50여명의 동문들이 모였으며, 특히 50년대와 60년대에 학창생활을 했던 동문들이 여러분 참석하셔서 덕담으로 시간가는 줄을 모를 정도로 화기에애한 분위기였다. 이 자리에서 조요한 교수님은 새해를 여는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다.

II. 동문 동정

▶ 박근용 목사(35회·전 서울장신 학장)

1997년 5월 12일 개최된 제39차 승실대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4년 임기의 동문 파송 재단이사로 추천되었다. 학교법인 승실재단에서는 1998년에 들어와서야 동문회의 추천을 받아들여 박 목사를 이사로 선출하였다.

▶ 박종순 목사(40회·총신교회 담임)

성직자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교회 부흥과 교회지도자 양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한국기독교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공로로 개교 100주년 기념일에 모교